

2024년  
고3  
10월 학평

2024년 시행 고3 10월 학평 국어 문학 | 흥백화전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 순직소가 부친의 편지를 받고 급하게 뜯어 보니 죄를 입어 백의종군으로 변방으로 가게 된 이야기(편지 내용①)와 여 승상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한 사연(편지 내용②)이 있었다. 특히 여 승상이 혼사를 정한 것과 이 혼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함(편지 내용③)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또 “네가 어릴 때부터 글을 읽어 의리를 잘 아는지라. 모름지기 부모 명령의 경중을 이해하고, 계씨 집안의 작은 정과 여 승상 집안의 큰 은혜의 경중을 잘 헤아려 다시 전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고 편지를 받은 날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여 씨 집안과의 혼사를 이루어 멀리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라.”라고 별도로 말(편지 내용④)을 하였다. ]([ ]: 부친의 편지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부친이 순직소에게 혼사를 명하는 편지를 보냄.

[ 순직소는 주 씨와 함께 부친의 편지를 보고는 부친이 큰 화를 면하였지만(죽음을 피함.) 위험한 곳(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하였다. ]([ ]: 편지 내용①에 대한 슬픔) 이에 주 씨가 순직소에게 말하였다.

[ “소저(순직소)는 계일지와 나이, 재주, 외모 등이 모두 알맞아 하늘이 둘의 인연을 내렸다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이처럼 되고 보니(편지 내용③, ④) 하늘의 뜻이 계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것 같군요. 소저는 계일지와 함께 지냈고, 공부하면서 서로의 재주를 공경하였으며, 둘 사이에 조금도 구차한 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혼담을 주고받았으나 몸을 허락한 적이 없었으니 최앵앵과 왕교란처럼 남자와 함께 야반도주하는 일은 잊어 버리기 바랍니다. 절개를 잃어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과는 함께 의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 처하면 소저는 부친의 명을 따라 스스로 자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 주 씨가 순직소에게 부친의 명을 따를 것을 권함.)

순직소가 크게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진실로 작은 어머니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지금 사생의 기로에 계시는데 한나라 시절 제영처럼 황제에게 부친을 용서해 달라는 상소를 올리지는 못할망정 혼사를 의논해야겠습니까?”(자식 된 도리를 명분으로 삼아 혼인을 미룸.)

주 씨가 말하였다.

“소저의 말(부친이 위태한 상황에 처한 지금 혼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이 맞습니다. 여 승상 아들에게 편지를 써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혼례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전합시다.”

▶ 부친의 명에 따라 여 씨 집안과 혼사를 이루기로 함.

순직소가 비록 말은 이렇게 했지만 계일지와 의 언약을 생각하면 간장이 끊어지는 듯하였다.(내적 갈등. 자식 된 도리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 사이의 갈등. 순직소의 갈등 양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배를 돌려 개봉부 동문에 매고 이날 밤이 새도록 생각했지만 이 위기(여 승상의 아들과의 혼인)에서 벗어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탄식하며 말하였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데 무슨 상관하겠는가!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은 분명한 명분이 없으니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죽음으로 설득한 후 그 뜻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 목숨을 버려 계일지와 의리를 지키리라.(방법① 죽음으로 계일지와 의리를 지킴.)”

갑자기 생각해 보니 지난날 부용헌에서 계일지와 맹세할 때 계일지가 죽음으로 맹세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기억(방법①의 장애 요소: 계일지가 죽음을 허락하지 않음.)이 떠올랐다. 마치 오늘의 일을 미리 예상한 듯하였다.

‘슬프다! 계일지의 정은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자이고 형제도 있지만 계일지는 외아들이라 나를

### 핵심 정리

- 갈래: 고전 소설, 재자가인 소설, 염정소설,
- 성격: 희생적, 낭만적, 여성 주도적
- 주제: 계동영의 아들 계일지와 순경화의 딸 순직소가 장애를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
- 특징
  - 군담 소설의 초기 단계이나, 주인공의 고행담과 영웅적 활동이 빠져 있음.
  - 우연의 일치가 비교적 적고 필연성에 의해 구성하려 함.
  - 여성 주인공의 지혜에 따른 난관 해결이 돋보임.
  - 우리 사회의 정서에 맞는 애정결연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됨.
  - 남장 모티프가 나타남.

### 전체 줄거리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미래의 배우자로 여기던 순직소와 계일지는 집안의 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해 혼인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여 승상의 아들 여방언이 순직소의 미모에 대해 듣고 순경화에게 혼담을 전한다. 처음엔 계씨 집안과의 오랜 약속과 순직소의 마음 등을 이유로 여 씨 집안과의 혼인을 사양하던 순경화는 여 승상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뒤에 여 씨 집안과의 혼인을 받아들이게 된다. 여 승상의 아들과 결혼하게 된 순직소는 자신이 아니라면 계일지가 좋은 배우자와 혼인하지 못하여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중 재색을 겸비한 의양 군주의 딸 설유란을 알게 되고 계일지와 혼인시키고자, 사윗감을 구하는 의양 군주에게 계일지인 척 글을 지어 보내고 계일지로 위장하여 만나 빼어난 용모로 사윗감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계일지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고 아버지인 계동영 역시 오랑캐를 물리쳐 나라에 큰 공을 세우게 된다. 자신의 정체를 의양 군주와 설유란에게 편지로 밝히고 순직소는 떠나고, 의양 군주와 설유란은 순직소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는다. 순직소에 감동한 설유란은 묘책을 떠올려 여 승상의 아들을 황제의 딸과 혼인하게 만들고, 혼인에서 자유로워진 순직소와 계일지, 설유란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

### 이해와 감상

『홍백화전』은 남녀의 결연 과정을 소재로 한 애정 소설로, 재자가인의 결연담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특히 여성 주인공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일련의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한다. 『홍백화전』은 여성이 남장(男裝)을 하고 남자 주인공을 대신하여 결연을 주도하고, 여성 주인공들이 한 명의 재자를 함께 섬기고자 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즉, 『홍백화전』은 여성이 서사의 주체가 되는 '여성 주도형 재자가인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적극적인 활약이 돋보이는 여성 주인공에 비해 남성은 상대적으로 섬약하고 우유부단한 재자의 모습으로 그려진다.